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오직 여호와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제목 :선두로 가시는 하나님 성경:미가서 2장 1-13절 (Tag:)

1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피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2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3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아에서 벗어나지 못 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4 그 때에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고도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리니

5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에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6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7 너희 아굽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나

8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 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9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10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니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11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네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12 아굽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 떼 같이 하며 초장의 양 떼 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13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 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하시니라 (미2:1-13)

오직 하나님이 우리 앞서 가신다.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 되신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우리 주님 예수님은 선하신 목자시다. 그는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아끼지 않으신다.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는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는 센서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뒤를 따라 간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다.

하나님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로 따라가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결단이요, 신앙고백이다.

하나님이 없다는 말도 거짓말이고, 사람의 욕심을 충동질하는 말은 악한 말이다.

우리는 깨어 기도하며, 충실하고 열심히 교회생활을 통해서 유혹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병든 닭 마냥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허송세월 하지 않아야 한다.

오늘 본문 말씀은 미가 선지자의 경고의 말씀이다.

당시에도 악한 자들이 기득권과 권력을 이용하여 약자들을 괴롭히고 그들의 것을 빼앗는 일들이 많았다.

1-5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이런 악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갚으신다는 경고의 말씀이다.

오늘날에도 자신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많다. 다행히 요즘은

대놓고 악을 저지르기 보다는 그럴듯한 제도와 법을 통해서 욕심을 채긴다. 우리나라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구분해 놓고 일한다. 정규직은 모든 혜택을 다 누린다. 비정규직은 최소한의 임금으로 더 많이 일하면서도 복지 혜택이나 처우 등에서 뒤쳐진다. (회사는 정규직을 더 적게 채용하려고 하고, 정규직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반복적인 일들을 패키지화해서 비정규직에게 맡긴다. 결과적으로 정규직은 관리하는 업무와 창조적이거나 기획하는 업무에 치중하게 되어 대단히 합리적으로 회사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회사가 비정규직들의 인권이나, 생활, 복지에 대해서 정규직과 다른 대우를 베푸는 회사가 있다면 그 회사는 정의롭지 못하다. 업무능력이나, 업무의 성과, 공헌도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은 합리적이다. 그러나 복지를 성과급과 연계해서 생각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복지에서 차별은 있을 수 없다. 또한 비정규직의 업무성과도 결코 과소평가되어서는 정의라고 할 수 없다.

선지자 미가가 정의를 외치자, 그런 말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7절-도대체 야곱의 집이 저주를 받는다니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서 성급해 지셨다는 말인가?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들이 어찌 그따위라는 말이나? -미가가 대답하기를, 나의 이 말씀은 정직한 자들에게는 유익한 말씀이지 않는가?) 그리고 오히려 거짓선지자들의 달콤한 말은 자기들의 욕심을 부추기는 말이기 때문에 좋아하였다.(11절)

요즘은 인터넷의 발달로 사람의 욕심을 부추기는 말들이 더 많아졌다. 예전에는 악한 말들이 스스로 부끄러워서 몰래 음지에서 수근거렸는데, 이제는 악한 말들이 노골적이 되었다. 악한자들이 법을 더 잘알고 인권을 더 잘 챙겨 먹는다.

죄란 정죄받아 마땅한게 아니라, 방지하고 막아서고 적극적으로 퇴치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기독교는 죄를 정죄하면서 죄의 확산을 막아왔다. 그러나 이제는 정죄를 통해서 막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 그렇다고 죄를 방관할 것인가? 죄는 경찰과 사법기관의 소관이라고 여기고 무책임할 것인가? 경찰이나 사법기관은 범죄자들을 다스리는 기관이고, 교회는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자들을 계도하는 기능을 감당해야 한다. 병원이 병을 고치는 기관이라면 교회는 병을 예방하고 병원과 협력해서 병을 치유하는 기능을 감당해야 한다.

한국교회는 선교에 열정은 있으나 전략적인 선교에는 실패했다고 볼 수 있다.

교단들이 연합해서 실천해야 할 일들을 각개전투를 하면서 경쟁하느라 힘을 소진했다.

방송국을 많이 세우고, 너도 나도 설교 방송을 하는데는 성공했으나, 설교스타를 만들어서 누구나 그 설교를 듣고 가까운 교회를 찾아가게 하는데는 실패하였다.

즉 몇몇 대형교회를 세우는데는 성공했으나, 전체적으로 전국에 흩어져 있는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데는 실패하였다.(이 점에 대해서는 카톨릭이 더 잘함.)

그러나 아직도 때는 늦지 않았다. 우리는 얼마든지 잘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자. 한국의 어떤 기관보다도 한국교회 안은 건강하고, 인재가 많고, 콘텐츠도 풍부하고, 자원도 풍성하다. 다만 조직화되지 않아 힘을 발휘하지 못할 뿐이다.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전략이 필요하다.

민족의 영적 지도자가 필요하다. 영적 거장이 필요하다. 한국을 위한 기드온이 필요하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하지 않는가?

12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 떼 같이 하며 초장의 양 떼 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겠다’ 고 하신 하나님.

우리를 초원이 양떼처럼 모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옵소서.

한국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득차게 하옵소서.

13 누군가가 길을 열어 그들을 이끌고 나가며, 그들은 성문을 부수고 간혀 있던 성을 떠나갈 것이다. 그들의 왕이신 여호와께서 앞장서서 그 백성을 이끌실 것이다. (쉬운성경)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가 길을 열어 그들을 이끌고 나가며, 모든 율법주의를 깨뜨리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그 백성을 이끌실 것이다. 아멘.

<찬양예배>

주제: 제목:경외함으로 구원을 이루라 말씀: 빌립보서 2장
12-16절

12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13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14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15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16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달음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함으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빌
2:12-16)

구원이라는 단어의 뜻

save

건져낸다.

살려낸다.

더 나은 상황으로 옮긴다.

문제를 해결한다. 치료한다.

가장 소극적으로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견디고, 이겨내고, 초월하게
한다.(불교적) -기독교에서 이런 의미로 사용하는 것은 더 나은 내세
를 위함일 뿐. 현재적 구원을 중요하게 여긴다.

(무교는 현재적 구원 중에서 물질적 구원과 개인적 구원에 치중함)

(기독교는 현재적 구원 중에서 정의와 선을 행함으로 인한 복과 사
회적 구원을 중시함.)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

교회는 구원을 위한 가장 전문적인 기관. 누구든지 교회를 통해서

유익을 얻을 수 있으며, 가장 복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교회에 정상적으로 출석하는 것 만으로도 충분히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다.

교회에 열심을 내는 것만큼 영혼은 만족을 얻으며, 더 큰 복을 받는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란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구원의 요소는 영생이다. 오직 교회를 통해서 영생을 얻는 길을 가장 잘 걸어가게 된다.

-두번째 중요한 구원의 요소는 이생에서의 복된 삶이다.

-이생에서 복된 삶을 누리다가, 내세에서는 영원한 복을 누린다.

-무엇이 이생에서의 복된 삶인가?

-영혼이 잘됨. 영혼이 건강함. 영혼이 만족을 얻음.

-영혼이 만족을 얻으면, 정신이(생각, 사상) 건강하고 만족을 얻음.

-정신이 만족을 얻으면, 도덕적으로 건강하고 만족을 얻음.

-도덕적으로 만족을 얻으면(죄책감에서 자유함), 홀몬 작용이 정상이 되고 결국 몸이 건강하고 만족을 얻음.

-부가적인 복.

-삶에 대한 가치관과 태도가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바뀜. 성격이 바뀌고 생활 스타일이 변하게 됨.

-더 고급스런 복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면,

-경건하고, 겸손하고, 정결하고, 순결하고, 진실하고, 거룩하고, 단정하고, 예절 바르고, 온유하고, 사랑이 많아지고, 항상 기뻐하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불쌍히 여기며, 동정하고, 사리를 분별하고, 희생하는 사람이 되고, 섬길 줄 알고, 일을 잘하며, 조심성이 많아지고, 배

우려는 태도가 좋아서 잘 배우며, 하나를 배우면 여러 가지를 깨닫고, 잘 가르치며, 충성하며, 잘 견디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욕심을 다스리며, 재능의 질이 높아지며...

-교회생활에 열심하면 얻는 복

-하나님을 잘 섬기며, 예배에 집중하며, 기도에 힘쓰며, 전도에 힘쓰면

-저주가 빨리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되며, 기적을 자주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며, 기도 응답이 빠르고 잦으며, 믿음이 더욱 굳건해져서 환란을 이겨낼 수 있게 된다.

-헌금에 신중하며 인색하지 아니하며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면

-재물이 마르지 아니하며,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우시며, 자녀들이 결길로 가지 아니하며, 우환질고가 빨리 끊어지고, 사건 사고가 현저하게 줄어들며, 쓸데없는 지출이나 사기나 손해보는 일들이 매우 적어지고, 살림이 늘어나며, 생활에 지혜가 많아진다.

-하나님이 나라에 대한 소망이 크고, 그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면.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며 상급이 커지며 핍박도 겸하여 받으며 주를 위해 받는 고난을 기쁘게 여긴다.

12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은 이미 얻었지만, 또한 이루어가는 것.

-불안한 구원이 아니라, 상급 있는 고급구원을 의미함.

-모두 다 졸업을 하지만 모두 다 상을 받는 것은 아니다.

-그 행위와 말로 인해서(그 진정성의 차이로 인해서) 상급이 다른 것은 정의로운 것이다.

-분명히 값을 치루고, 치룬 것 보다 더 좋은 것을 받는데 마땅히 두

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완성해 가는 것이 가치있는 일이지 않는가?

*남 하듯이 하지 말고, 내가 잘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지혜.